

# 축산정보

## ■ 마사회 연말까지 농림부로 환원

-당 정, 축산 정책자금 상환기간 3개월 추가연장  
정부와 공동 집권여당인 국회의, 자민련은 한국마사회를 원래대로 농림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연내에 완료하는 한편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정책자금 5천7백7억원의 상환을 3개월 추가 연장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18일 김원길, 이태섭 양당 정책위원장과 장영달, 이상만 제2정책조정위원장, 그리고 김성훈 농림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WTO와 IMF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농촌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긴급 10대 농촌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기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합의한 농촌살리기 10대 지원대책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설치 목적에 충실하고 부도위기에 처한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조직법개정 등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연내에 완료하며, 농민대표가 참여하는 농가부채조사협의회를 설치, 유형별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당면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정책자금 5천7백7억원의 상환(신규연장 2천5백22억원과 재연장 3천1백85억원)을 3개월 추가 연장기로 했다.

## ■ 구제역 차단 범정부적 대책 마련

-정보파악, 검역, 밀반입 단속 강화

정부는 지난 5월 15일 북한지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구제역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4일 과천청사에서 농림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12개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중국이나 대만 등지에서 구제역 관련 정보 파악 ▲수입 육류에 대한 동물검역소의 검역활동과 공·항만 감시 및 밀반입 단속 강화 ▲관련부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농림부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국방부는 비무장지대와 해안선 일대를 중심으로 구제역 징후를 감시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며,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중국으로부터 전염가축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밀수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휴전선 인근 15개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과 32개 군납업체 돼지에 대하여 구제역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 ■ 북한, 5월초 구제역 예방위원회 신설

북한은 우제류 동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구

제역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월초 “구제역 예방 위원회”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구제역이 이미 만연된 중국 지역에서 수입하는 소와 돼지 등 가축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국가 비상 수입 검역기간”을 선포하는 등 구제역 예방대책을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북한의 조치는 중국으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일부지역의 농민시장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식품을 먹은 북한 주민들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북한당국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 “소음공해로 폐업한 양돈장에 21억 배상하라”

### -서울지법, 한국도로공사에 강제조정 결정

소음공해로 양돈장을 폐업한 농장에 대해 2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 농장은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법주농장으로 본지 97년 4월호에 소음공해로 유·사산·폐사 등이 발생하는 실태를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 나중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7일 법주농장 주인 최병록씨 등 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은 최씨 등에게 21억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제에서 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된 뒤 차량속도가 시속 60km에서 1백km로 높아지면서 늘어난 소음으로 인해 최씨 등이 더 이상 양돈장을 운영할 수 없어 양돈장을 폐업한 데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양돈장 부지를 농토로 환원하는 비용, 돼지처분비용, 시설물철거비용과 영업손실 등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고 밝혔다.

법주농장은 지난 93년 최신 무창돈사를 설치하고 1,700여두의 돼지를 사육하던 중 한국도로공사가 '94년말부터 시작한 원주~강릉간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에서 발생한 발파 및 차량 운행에 따른 극심한 소음으로 돼지 2,000여두가 폐사하고 끝내 양돈업을 폐업해 소송을 냈었다. 당시 도로공사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 농무부, GSM 자금 2차분 4억 달러 추가지원

### -사료곡물에 2억9천만 달러, 육류수입 6천만 달러 배정

미국 농무부는 지난 4월 24일 한국에 대한 GSM102 자금 추가분 4억달러와 미사용분 1억달러 등 5억달러에 대한 자금지원을 품목별로 배정했다. 덴 글릭먼 농무부 장관은 이날 사료용 곡물과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에 가장 많은 2억9천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곡물 품목별 배정금액을 보면 콩이 1억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밀이 6천만 달러 등의 순이며 나머지 1억3천만 달러는 옥수수, 보리, 귀리 등에 배정됐다. 농무부는 또 면화에 1억2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한편 목재품에 2천만 달러, 과일과 야채류에 1천만 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미국 국내에서 과잉공급 현상을 빚고 있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육류업자들의 치열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6천만 달러만 배정했다. 미국 육류수출업체는 쇠고기 등 자국의 육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배정되는 자금 중 4억달러를 육류수출용으로 배정해 줄 것을 계속 요구했었다.

본회는 이에 대하여 지난 4월 22일 농림부에 GSM자금 사용 건의서를 내고 추가 배정되는 GSM

자금이 사료곡물에 배정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농무부가 1차로 지원한 GSM 자금 10억불 중 10%인 1억달러가 육류수입에 배정 되었으며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중에서 육류수입에 배정된 금액 6천만 달러는 지원자금 5억달러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 ■ 배합사료 가격 추가 인하 단행

### -서울사료, 부산경남양돈조합 등 평균 3.75%

국내 사료업체들이 배합사료 가격을 잇따라 인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사료는 지난 9일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에 의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돈사료 2.8%, 양계사료 4.0%, 낙농사료 1.7%, 비육우용 사료 3.0%를 각각 인하했다. 이에 따라 육성돈용 양돈사료는 7천4백원에서 7백1백75원으로 인하 조정됐다.

부산경남양돈조합도 지난 5월 11일자로 사료가격을 평균 3.75% 인하했다. 부경양돈조합은 육성돈용 사료를 6.5% 인하해 8천8백70원에서 8천2백90원으로, 비육돈 사료는 6.3% 인하한 8천9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대의 사료 구매처인 농협의 관계자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환율 안정과 국제 곡물가격 하락 등이 사료값에 반영 될 수 있도록 16개 사료업체에 사료가격 인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 세원양돈단지, 종돈 140마리 홍콩에 첫 수출

경북 영주시 세원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대표 : 송영익, 경북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에서 사육한 돼지 종돈(種豚) 1백40마리가 지난 5월 20일 경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홍콩으로 수출되었다.

이번에 수출되는 종돈의 수출가격은 30~50kg 기준으로 마리당 2백50달러다. 모돈 7천두 규모의 세원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이 홍콩으로 종돈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5년 12월 미국 프리스티지사로부터 수입한 2백65두의 순종돈을 PWG사의 사양프로그램에 맞춰 사육하여 왔기 때문이다. 특히 세원양돈단지는 매달 사육중인 종돈의 성적을 미국 PWG사에 보내 성적을 분석, 지도받아 왔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세원양돈단지는 지난 5월 20일 홍콩에 1백40두를 처녀 수출한데 이어 매달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종돈 2백여두씩 수출할 예정이다.

## ■ 농림부, 농업용면세유 공급방법 개선

### -면세유 사용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폐지

농림부는 농업용면세유의 공급방법을 개선하여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농업용면세유를 97년도에 2,489천ℓ에서 98년도에는 104천ℓ(4.2%) 증량된 2,593천ℓ를 공급하고 농업용 LPG 10,700톤을 신규로 공급하는 등 면세유를 증량 공급하고 있다.

농림부는 현행 농가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때에는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 공급량(50%)을 공급 받은후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한해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추가공급(50%)받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의 면세유 물량이 줄었고, 절차가 복잡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면세유 사용명세서의 제출의무화를 폐지하고, 읍·면장 확인제도를 폐지하여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실소요량을 공급토록 하는 등 공급방법을 개선하였다.

다만, 농업용면세유의 부당 사용이 적발된 농가

에 대하여는 부당사용량에 대하여 과세조치하고 익년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농협 및 읍·면·동 게시관에 적발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주요 개선내용('98.6.1부터 시행)

구 분	종 전	개 선 후
면세유공급	사용명세서 제출 기본공급량(50%)과 추가공급량(50%)으로 구분하여 추가공급 량은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공급	폐지 연간공급한도량 범위 내에서 실소용량을 공급 읍·면장 확인 폐지
사후관리 강화	농업용 이외 목적으로 면세유사용 적발시 익년도 면세유 50% 삭감	부당사용량 과세조치 및 익년도 면세유 공 급 중단 부당사용농가 : 농협, 행정기관 게시관 등 에 게시

## ■ 국산 냉동돈육 일본시장 점유 증가

### -3월 통관량 기준 21.6% 점유로 1위

한국산 냉동돈육이 일본의 통관량 기준으로 3월 수입물량 가운데 원산지별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장성이 발표한 무역동향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 3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앞달보다 10.6% 증가한 25,692톤으로 집계 됐다.

이 중 냉장육은 앞달보다 1,485톤(14.6%)증가한 11,169톤, 냉동육은 7.8% 증가한 14,523톤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별로는 냉장육의 경우 미국산이 앞달보다 54.2% 증가한 8,518톤으로 압도적 1위를 지켰으며, 캐나다산(1,423톤), 한국산(1,108톤) 등이 뒤를 이었다.

냉동육은 앞달보다 무려 172.3%나 폭증한 한국산이 3,131톤으로 전체의 21.6%를 점유, 수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미국산(2,762톤), 캐나다산(2,585톤), 덴마크산(2,564톤), 멕시코산(2,238톤) 등으로

모두 지난해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 농림부, 관급백신 냉장공급 체계 확립하기로

### -공동방역사업단 활성화 위해 자금 차등지원 계획

농림부는 공동방역 사업단의 예방접종(방역요원 확보)활동 부진 및 관급백신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기관 및 방역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추진하고 백신은 냉장 상태로 공급하고 공급 시기를 사전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농림부는 시·군 축산과 및 가축위생시험소의 지도·협조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공동방역사업실시단 운영요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 이동판매 중단, 수매육 처리 타격

### -단체급식 확대, 대일 수출 등 새 판로 모색 시급

이동차량 판매 등 수매육 직거래판매가 실질적 직거래와 무관한데다 식육판매업소 등 기존 한우고기판매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최근 전면 중단돼 수매육 소비축진에 비상이 걸렸다.

축협중앙회는 지난 2월17일부터 이달 초까지 2개월여 동안 축산물직거래의 일환으로 수매한우고기 이동차량 판매 등을 통해 20억원 정도의 수매육 판매실적을 올려 한우고기 소비부진 해소에 일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동판매가 단순히 판매장에서 차량판매로 바꾼 것에 불과할 뿐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한 직거래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기존 한우고기 판매장의 매출을 떨어뜨리는 등 전체 한우고기 소비활성화에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이동 차량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월 평균 3백40톤씩 이루

어지고 있는 군납 등 일부 소비물량과 직영매장 판매물량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매육이 판매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4만여두의 수매육 재고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정부, 농산물 협상 준비 조기착수 저지

정부는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서 농산물 협상 준비작업을 조기에 개시하려는 수출국들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주장하기로 했다. 16일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오는 99년말부터 시작되는 농산물 협상의 준비작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일본, EU,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과 연대,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계 무역기구 2차 각료회의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농림부 등 관계자 20여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 전국 50여 농민단체, 마사회 즉각 농림부 환원 촉구

### -마사회 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주장

대한양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전국의 50여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마사회 농림부 환원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한국마사회를 즉각 농림부로 환원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환원추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국민과의 대화중에서 김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바 있거나 대선 당시 지민련 김

종필 총재와 한나라당 이한동 대표의 공약사항이므로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공개리에 제시한 합의 사항"이라면서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의 활로모색과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환원추진위는 "문화체육부가 개편돼 체육기능은 민간에 이양되고 문화관광부로 바뀌었으므로 마사회를 더 이상 문화관광부에 존치시킬 명분이나 목적도 상실됐다"고 밝혔다.

## "배합사료 품질 저하" 사실 확인

### -농림부, 26개 업체 검사결과 6개 업체 함량 미달

농림부가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26개 사료업체에서 채취한 배합사료 시료 1백26점을 검정한 결과 6개 업체 7점이 성분함량 미달 등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IMF 이후 배합사료 품질이 저하됐다는 일선 양축농가들의 불만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6개업체 7점의 성분함량 미달 등 위반사항은 주로 양계사료에 국한된 것으로 육계전기 사료와 산란초기 사료에서 아미노산과 인의 함량이 각각 미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성분 함량 조사에서 양돈용 사료는 성분함량 미달 등 위반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분함량 위반 배합사료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농림부에서 검정한 위반율 5.6%는 97년도 배합사료 평균 위반율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신문 등 폐지 축사갈래 위생적

### -톱밥보다 수분 흡수 잘되고 잡균 발생 적어

축사의 바닥에 톱밥 대신 신문과 잡지 등 폐지를

깎아 재활용 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일본 전국 농업 협동조합연합회와 한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기술은 신문과 잡지 등 폐지를 10~20mm 크기로 자른 뒤 화학처리해 축사의 깔개로 사용하는 것으로 톱밥보다 10배이상 수분을 잘 흡수하고 가벼우며 잡균 발생도 적어 위생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금속 검출위험이 없어 사용후 발효시키면 양질의 퇴비로도 쓸 수 있고 보존성이 뛰어나다. 또 우사의 경우 소 한 마리당 30~35kg을 넣으면 1개월만에 한 번씩 교체해 4~5일 마다 새로 깎아주는 톱밥보다 비용과 일손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이다.

## 농림부, 저가돈육수출 신고센터 운영키로

### -돼지고기 덤핑 수출에 "제동"

정부는 국내 수출 가공업체들의 돈육 덤핑수출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농림부는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돼지고기 저가 수출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협회로 하여금 매월 수출업체별 수출단가를 파악, 이를 농림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돼지고기를 저가로 수출한 업체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일체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축협중앙회에서는 이들 업체들부터 정책자금 회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덤핑수출 규제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의 이번 조치는 덤핑수출로 인해 한국산 돈육의 이미지 저하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 돼지고기 수입, 증가세로 반전

IMF체제 돌입후 급격히 감소했던 돼지고기 수입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외국산 돼지고기는 월평균 6천톤 이

상 국내로 들어왔으나 IMF한파가 몰아치면서 수입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 올해 1월에는 800톤 수준까지 축소됐었다.

그러나 원화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외국산 돼지고기의 국내시장 공략도 다시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월 798톤에 그쳤던 수입 규모가 2월 1,047톤, 3월 2,155톤으로 늘어났고 지난 달에도 전월대비 배이상 수입량이 확대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돼지고기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자 양돈농가 등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돈육의 국내 유통가격이 국내산 돈육보다 훨씬 낮아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농협, 사료사업 참여 적극 검토

### -김성훈 농림부 장관, 농협에 "사료사업 참여 검토"지시

농협중앙회가 사료사업 진출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지난 4월 17일 농협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이 사료에 대해 중개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사료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료공장 인수를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협은 사료사 진출을 위해 권역별로 사료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경북지역에 부지까지 확보했었으나 시설 과잉이라는 여론과 축협과 정부 등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료사업 진출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김성훈 장관의 뜻에 따라 농협의 사료사업 진출이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養豚**